



## 일체 만물만생을 다 들이네게 집어삼켜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두 번째는 제 개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마치고 금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공직 생활을 반조해 볼 때 모두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감사하게 느끼고 동시에 좀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은혜에 보답도 좀 하고 세금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인공한테 믿고 놓아서 해결해 보려고 사무실을 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또한 부처님과 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누가 된다는 생각도 놓아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물론 사람이 생명의 근본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내면 몸이 움직여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마음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고 또는 몸을 움직여지지 못하면 불구인이고 또는 육신이 보이지 않으면 무효고 이렇게 되니까 그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수 얘기 했듯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아래로 들 때는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고 위로 올라올 때는 낮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낮과 밤이 없으면 못 살듯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법이예요.

그런데 그대로 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마음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잘되고 못하고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이런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를 전부 잘들 아십니다. 잘들 아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이게 나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맑은 물이 나와서 막게끔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둘 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거리면서 체적질해 가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1(남):**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전 대전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저번에 집에서 화단을 전지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 죄다 뽑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화초나 잡초가 다 같은 불성인데 어느 것은 기르고 어느 것은 뽑아 죽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하는지요?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르는 것도 없고 뽑아 버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차를 타고 내렸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타는 거는 화초를 기르는 것이요 내리는 것은 잡초를 뽑아 버리게 됩니다. 내리는 것도 법 타는 것도 법이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아 버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뽑아 버린 것이 그냥 뽑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차를 올라타듯이 다시 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으로 그냥 그 잡초를 뽑아 버렸을 때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이 거기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화해서 그 잡초는 다시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물이 수증기나 빗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잡초든지 꽃이든지 나 무든지 다 먹어 살리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보일 때 잡초지 또 한 번 돌아서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또 나올 때는 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인간도 인간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습도 모습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화해서 변명이 되고 또 한 걸음 돌아가면서 바뀌고, 이렇게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낫이 있고 법이 있듯이, 안 보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옹공로에다가 모든 거를 집어넣어서 다

시 생산이 돼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또 생산체에 나와서 또 다른 걸로 변명이 돼서 다 나가고 또 그것이 할어지면 옹공로로 또 들어가서 다시 생산이 됴므로써 다른 물건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거는 잡초를 뽑아 버린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다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언젠가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이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애 부지갱이 하나라도 늘지 않았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그동안 열심히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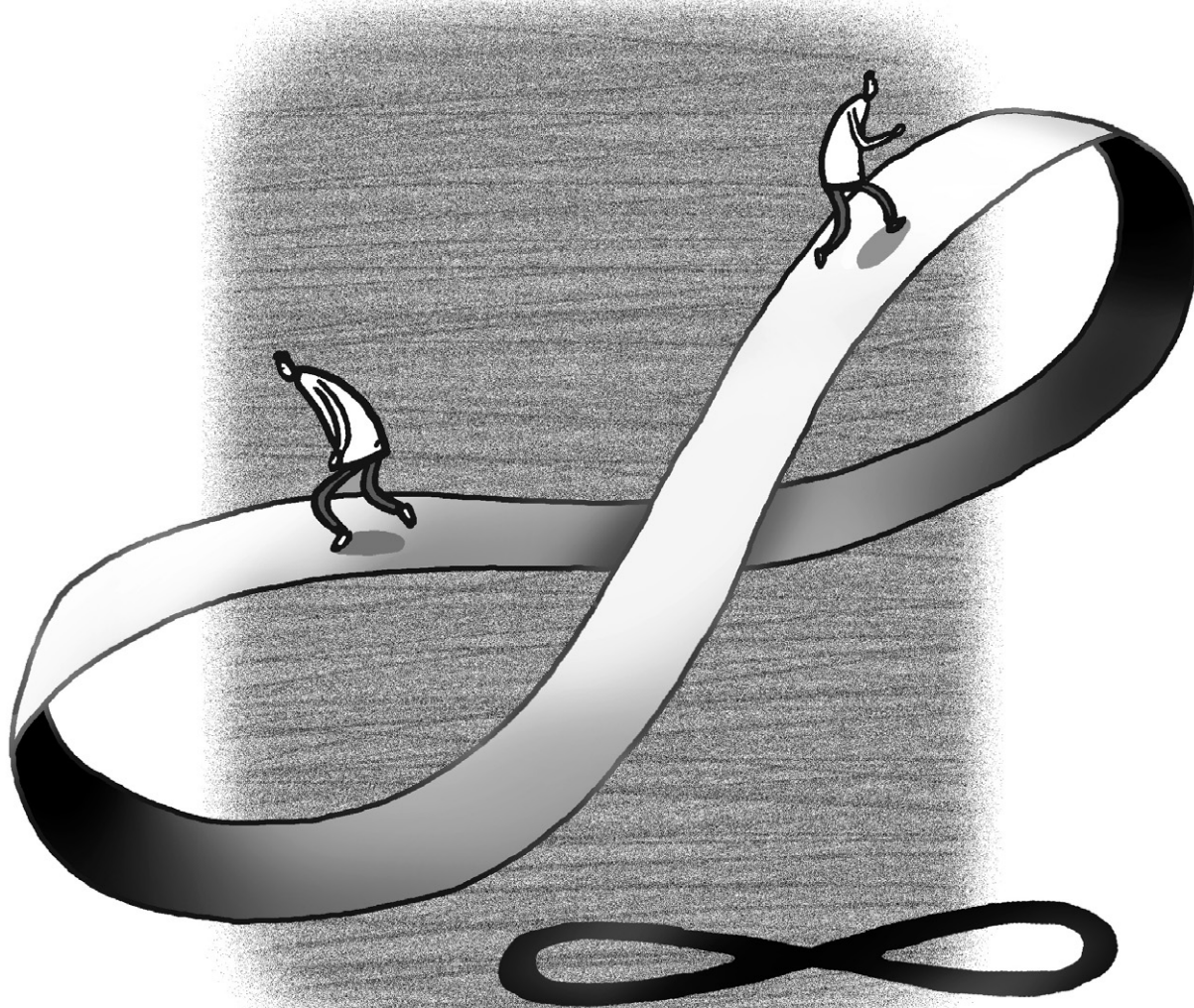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데, 이번 토요일이면 새 집에 이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지원 가까이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또 민기도 참 힘들었는데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 스님을 보고 싶어하기에 오늘 이사할 건데 다음 주에 이사하려고 마음먹고 오늘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잘했어! 사실입니다. 이 공부 하면서 부지갱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지 않고 배척하고 돌아서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하게 얘기해 드릴 것은, 시주를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기면 해아지.' 하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시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 놓지 마세요. 또 어떤 때는 쓸데도 많은데 돈이 생겼다고 몽땅 이렇게 해 줬다고 급하다고 그거를 되집어서 쓰지 마시구요. 네? 되집어서, 되나누어서, 떼어서 쓰고 다시 해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외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값을 줬다가 물건값을 떼어서 내가 뺀 거나 똑같은데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가 모든 경령에서 여러분에게 이끌어 드리는 말입니다.

**질문자4(여):** 대구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있는 여기사입니다. 근데 10년을 넘게 일을 했지마는 이런 체험은 못 해 봤어요. 시외 장거리를 가다 보면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미를 갔다 왔는데 그 날따라 차에서 탁 내리니까 하루살이와 날파리, 모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차 앞에 가니까 비린내가 갑자기 그렇게 낯오.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만큼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직것은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죽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구미 장거리를 가게 됐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표를 끊는 순간 '주인공!'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

30면으로 계속

###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인사



### 세척력이 강력한 유황 한방비누, 활피모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과학박사 (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리징 대응, 건강피부 유지, 애원건 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명리학 학인 모집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 초음파 방역 시스템

### 기화방제소독, 방충, 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환경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 기술의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 방역, 방제,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 개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인증(HT제2008-0001/36호)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 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 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 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  
031)451-6232 팩스 031)451-6238

## 공 고

귀의삼보 하옵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중도여러분

그동안 불법홍보와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중도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공문을 받아보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세무번호를 이용하여 많은 금액을 난발하여 국제청에 조사를 2번이나 받고 부득이 그동안 사용하던 종단명용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던 종명은 2012년 10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문의 : 총무원장 적용 만오

010-8009-1020

## 사찰(급)안내

- ① 위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 거리)
- ① 전시관 (2009년 준공) 2층 240평  
대웅전, 종각, 지장전(120여가 분 모셔있음)  
산신, 용왕전 외 2,500여평 (국도변 마을 안에 있음)
- ① 경주, 대구, 영천 30분 거리
- ① 전시관 고풍상(20년 전부터 한국, 인도, 태국, 티벳,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구입 한 원품 불, 보살님)  
총 구입가격 40억 이상.
- ① 인도 2000년 된 목재화상 고풍상, 1000여년된 고풍상, 일부 고풍상은 훼손이 심하여 크리스탈 개금, 순금 개금불, 티벳에서 구입한 만다라.
- ① 2012년 초파일 참여인원 : 약 2500 불자님
- ① 2층 전시관 완공내역 : 15억원
- ① 눈물흘리는 약사여래불 좌상 있는 곳
- ① 주지스님 직접 양도
- ① 서포항 개발지로서 준 주거지, 매매해 두시기만 하여도 배 이상 매매가 보장.
- ① 가격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26억 금 양도
- ①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일부 공개됨.

연락처 : 010-4504-0174

#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죽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구미에 도착했을 때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날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를 100km를 넘게 냈는데도 나방이 한 마리도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장거리를 가게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끊고 있는 그날 고속도로에 올랐는데 구미에 도착하니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비린내가 나고 너무 구역질이 나고 못 견디겠다고요.

관했을 때는 되는데 관하지 않았을 때는 안되고, 마음을 냈을 때는 되는데 맘 내지 않았을 때는 안되더라고요. 여러 번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내고, 주인공 자리에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단 한두 마리 정도 붙어 있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했지요.

근데 왜 마음을 냈을 때는 안 죽고 안 냈을 때는 죽는가 하는 그 의문이 아직도 안 풀려요. 스님. 그러고서 얼마 전에 또 시골길을 갔는데, 시골길은 원래 하루살이 모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은 막 달라붙는 순간 주인공 자리에다 탁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오다가도 전부 다 차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요. 그제 전편 와서 내리서 보니 까 몇 마리 안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관했을 때는, 마음을 딱 주인공 자리에 맡겼을 때는 안 죽었는데 말이지 않았을 때는 왜 죽는 겁니까?

**크스님:** 이게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내면 그쪽에서도 전깃줄이 오듯이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붙어 들어오듯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에 그 하루살이나 나방은 다시 화해서 다시금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묘법인지 모르나.

**질문자4(여):**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크스님:** 그래서,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잘 들으세요. 정신계 과거 부(父)와 현실 자(子)가, 생각을 안 했다 하면 부로 하나가 돼 버리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로 하나가 되니까, 움직여라니까 법이 되고 법신이 되고요. 또 그냥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주인공에다 맡기면 그냥 부로 하나가 돼 버려요.

즉 말하자면 당신과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한 부부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당신,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나 좀 도와줘!” 이런다면 바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돼 버리죠. 하나가 돼서 남편의 마음과 그냥 같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적합하게 해 나가요. 그런데 또 남편한

테 얘길 하면서 “이걸 하는데 당신도 좀 도와줘.” 하면 그냥 남편이 부인으로 하나가 돼 버려요. 부인에게 한마음이 돼 버려요. 그게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돼서 되는 게 아니구요,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로 돌아가고요. 그러니 그것이 부와 자가 상봉해야, 우리가 ‘견성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둘로 보니까 아니 되죠. 때에 따라서 이거를 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하고 저거를 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하고, 꽃을 볼 때는 꽃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잘 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나뉘는 거죠. 그러고된 조조만한 체험이 바로 이 세상만사를 다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줄을 잡고 나

부진증으로 벌써 1년이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형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를 써도 그렇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제 주인공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결국 주인공이 인도한 대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스님, 좋은 가르침 주십시오.

**크스님:** 주인공한테 나를 낫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려면 전깃줄과 전깃줄을 갖다가 그냥 들어대서 매라 이거죠. 그래야 불이 들어오지 ‘이 줄을 붙게 해서 그저 병이 낫게 해 달라!’ 이런다면 벌써 둘이 되잖아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불일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본인한테 관법을 가르쳐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이것

서는 부처님도 집어삼키고 일체를 집어삼키는 데 있는 겁니다. 모습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마음을 줬는데 남편이 그냥 아내 마음을 집어삼켰어요. 집어삼키고선 일을 해요. 또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해 가지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그냥 삼켜 버렸어요. 삼키고는 일을 해요. 그럴 때에 찰나찰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과거 부, 자기 정신계의 자기와 현실계의 자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안 할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즉 정신계의 부가 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부가자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대로 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체를, 거지든 부처님이든 일체 만물만 생을 다 다스리게 집어삼켜라 이런 뜻이죠.

했습니다. 참 낫았었지요.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셨고 하는 것을 쪽 읽게 됐습니다. 읽고서 하나하나 가슴이 메이지 않는 데가 없어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절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서 “몇 번 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부처님 앞에 가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압니다. 양산에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월 초하루, 그다음 관음제일, 지장제일, 그다음에 칠월 칠석, 그다음에 칠월 백중, 이렇게 가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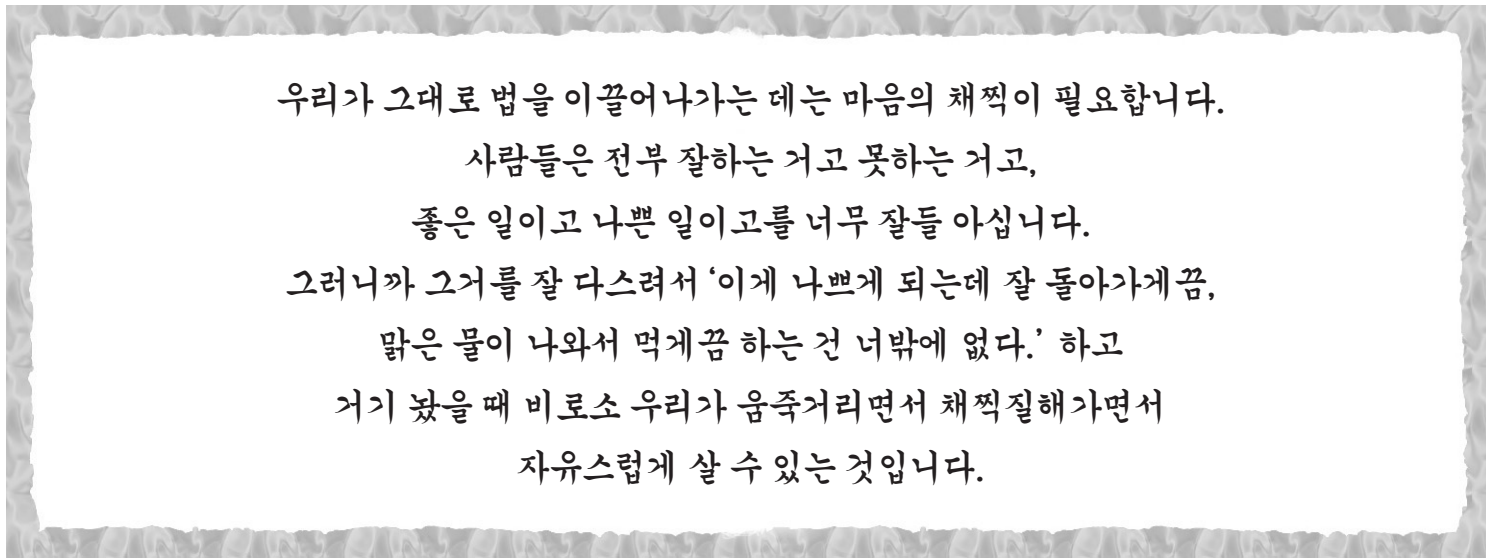
불교에 인연이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몸이 팽창합니다. 술도 좋아했고 모든 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사나이가 하는 거라면 다 했습니다. 장사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통풍이 왔습니다. 어떤 절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스님께서 침을 놓으시는데 30일간의, 하루 맞을 때 한 백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아서 통풍은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불심을 바로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오늘 크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한마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경을 읽거나 예불을 모시거나 스님이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를 하거나 그런 모든 게 다 불정심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도 진풍이 온다 하면 항상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하나가 내 이 손이 가면 통풍이 온다든가 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냥 스스로 주무시고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낫게 해 달라, 낫게 해 달라 하고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는 것도다 우리가 불정심을 가지고 내가 찾는다든 그 뜻은, 신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라지 말고 항상 남한테 배움면서, 배움는 대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불심을 가지고 항상 같이 해 나간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내가 잘못하겠다 싶을 때는 바로 어떠한 부처님께서 나뉘셔서 내 친구나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행한다 할 때는 또 막아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정심이요, 바로 불심을 진정하게 믿는 것이고, 또한 크스님의 말씀과 같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법회에서 진짜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는 게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잡고 나가는 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반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성줄.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 한 가지 더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딸이 7월에 턱 수술을 했었어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순간 모든 걸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붙어 들어오듯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들어가라. 크스님께 항상 네 마음의 전화를 해라.”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보냈죠. 그런데 두 시간만 걸린다고 한 수술이 무려 다섯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턱 뼈를 깎아 내고 이러는데, 수술실에서 열두 팀이 나왔는데 마취가 짙을 때에 전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떨고 그래요. 그러나 저의 딸은 병실에 와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크스님, 이 공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5(남):** 크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형수가 심

을 쓰게 할 수 있다.’ 하고 관하라고 그러세요.  
**질문자5(남):** 고맙습니다.

**질문자6(남):** 저는 법행제회 심의회 회원입니다. 크스님께서 매번 저희들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자상하게 법을 일러 주시니 그 은혜말로 하늘과 같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스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마음 깊이 모시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느 조사께서는 “부처가 이 자리에 있다면 감히 죽어서 가나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공안(公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은데 감히 스승을 죽이겠다는니 무슨 망발인가 싶습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가르침을 배우는 도리는 어떠한가요 하는지도 말씀을 청합니다.

**크스님:** 그런 아주 간단한 일이지. 하하하... 부처를 말하듯이 아까도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팔만대장경을 집어삼키지 않는다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은, 부처님의 마음을 집어삼키면 어디 제 마음과 둘이겠습니까. 그것이 선의 도리에

**질문자6(남):** 예. 말씀 감사합니다.  
**크스님:** 그러니 먹어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먹느냐?

**질문자7(남):** 크스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뵈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들께 제가 불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양산에 있는 절에 몸을 담고 있는 신도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저의 부친이 지금 암으로 3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친을 간호하던 모친도 또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크스님을 보이면 좋은 설법과 영험이 있다 해서 욕심나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불심을 갖게 된 동기는, 군대에 있을 때 장기 복무 하다 보니까 양산에 각종 예비군 및 방위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일들이 잘 안됐는데, 어느 날 책을 정리하는 도중에 79년도에 발행된 『불교성전』이란 책을 발견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중**

타방정도와 유심정도를 포용하는 《일심정도 염불수행》

정목스님 저음  
변형 신국판 | 컬러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도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증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도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양지 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